



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

스마트폰에서 구글 등 인터넷 주소창에 wekorea.com을 치면 위코리아 웹사이트가 오픈되며 맨위에 있는 삼각형의 플레이버튼을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LA의 생방송 청취!

> 30여년간 뉴스를 전하며 한인사회 대표 뉴스앵커로 인기를 얻고있는 송봉후씨가 만든 방송







213.340.6200 www.wekorea.com info@wekorea.com 3600 Wilshire Blvd. #620, Los Angeles, LA 90010